

東大新聞

1998년 (불기 2542년) 10월 12일 (월요일) 제 1256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10 /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겸 주간 정택성 / 부주간 임규박 / 편집국장 박상관 / 편집장 최정식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02) 260-3491 ~ 2 FAX (02) 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61) 770-2057

금주일언

사랑하는 것에 달려가지도 말고, 또한 사랑하지 않음도 있지 말라.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해도 근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아도 근심한다.
법규경 · 호희홍 316절

3년연속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

학생선택권 보장 위한 교육과정 개편 분야 ... 9억원 재정지원

96, 97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본교가 교육부 선정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본교는 3년연속 우수대학 선정의 영예를 안게 됐다. ▶관련기사 2면

이번에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분야는 '학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분야'이며 이로 인해 9억원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본교는 96년도 학생선발과 열린교육제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교육개혁평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돼 13억원, 이어 97년도에 대학특성화부문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12억 8천만원

을 지급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기중(국문학) 기획조정실장은 "3년 연속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본교를 비롯해 3개 학교뿐"이라며 "이는 학교의 대단한 영광이며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은 기존의 교육개혁 전반에 대한 심사와는 차별을 두어 공통심사기준(30점)과 △학생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개편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학생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선발 △대학별 선택, 교육개혁 실천 등 이

상 총 4개 분야 중 각 대학이 선택한 1분야(70점)를 평가해 결정된 것이다.

공통심사기준은 △대학구조조정(12점), △교원인사제도 운영의 합리성(13점), △대학의 정보화(6점) 등이다.

본교가 선택한 학생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개편 분야의 평가 기준은 △모집단위의 광역화(8점) △학생의 전공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25점) △학생 전공의 실질적 보장(30점) △전공선택권 보장에 따른 부차용 해소 노력(7점) 등이다.



민주총장... 지난 9일 교수회는 서울 경주 협동대의원회를 열어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위한 방안으로 교수직 선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선관위 구성을 논의했다. 교수회는 여전히 "교육, 연구의 주체는 교수들이다"라며 교수직선제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학내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어 총장선출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부

링크대와 학술교류 협정



본교는 지난 7일 뉴질랜드 링크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뉴질랜드의 대학과는 처음으로 맺어진 이번 학술교류 협정에 따라 학술자신의 상호교환, 교직원 상호교환, 공동연구, 교직원계발 프로그램의 공유, 교과과정 개발활동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대발전 후원의 밤 오는 21일 문화관에서

법과대학은 오는 21일 오후 7시 서울캠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동국법대 발전기금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새로운 교육과정과 시설 투자, 우수학생 및 교수회보증을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법과 대학은 지난달 24일 후원회 발족 모임을 갖고 이연택 전 총무처장관을 후원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연택(법학 61졸) 후원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동문들과 학부모, 불교계 지도자들이 법대 발전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새로운 후원회 체제를 갖추므로 법과대학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회의

양국 협의체 구성 논의... 다음달 2·3일 열려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회의가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본교에서 진행된다.

본교를 비롯 중앙승가대, 위덕대, 원광대 등 4개 대학총장과 일본 8개 대학 총장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불교적 건학이념 구현 및 21세기를 대비한 불교계 대학의 역할에 대한 협의를 통해 상호발전의 도모하고자

한·일 양국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회의 첫날(2일)은 오후 3시부터 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21세기 불교계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강연회가, 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교무위원회의실에서 '향후 협의체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주캠 개교 2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지난 9·10일 '분황사의 재조명'에 대해

'경주캠퍼스 개교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제 20회 신라문화원 학술발표회'가 지난 9일과 10일 이틀동안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됐다.

신라문화연구소(소장=김갑주·국사학)에서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는 '분황사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국내외의 10명의 석학을 비롯한 27명의 초청인사가 참석, 주제발표회와 종합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학술회의 주제발표자인 장종식(미술사학) 교수는 "경주캠 개교 20주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3월 24일 발굴한 상량문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암진왜란 당시 분황사의 현상과 보광전에 전래되는 역사상의 조성연대, 재료 및 배치까지 알 수 있게 됐으며, 이러한 자리를 통해 발표할 수 있게 돼 주최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교 20주년 행사와 관

련해 김갑주 부총장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비롯한 전체 주체들이 모인 기념행사는 오는 11월 중순경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불교문화 학술회의 오는 27일 덕암세미나실

제 5회 한·일 불교문화 학술회의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본교와 일본 불교대학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불교에 있어서의 자비-현대사회의 대응'이다.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10월 19일자와 26일자 신문을 휴간합니다. 제1257호 신문은 11월 2일자로 발행합니다.

동국발전 대토론회 합시다

학내문제 공개토론...이달말 예정

대토론회 성패, 사전 철저한 준비·학교당국 적극적 태도가 좌우

제14대 대학원 총학생회(회장=박정진·정치학 박사과정 3학기)가 제안한 '동국발전대토론회'에 대해 학내주체들이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달 안에 대토론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불교종합병원·제3캠퍼스 건립 재정확보, 구조조정논의, 5백억 이월적립금, 총장선출제도 등 학내 현안문제를 학내 주체와 학교 당국간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풀어내고자 하는 대토론회는 학내 상황을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해결할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대토론회의 필요성 및 그것의 명분에는 모든 학내 주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실행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 교수장은 "동국발전이라는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며 각 주체간 이해가 어렵 만큼 실질적 효과 추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직원노조 백경선 위원장은 "탄탄한 준비 없이 대토론회를 진행한다면 학내여론을 나쁘게 조장할 수 있다.

보다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대토론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신속하게 꾸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준비위는 각 주체의 실무자들로 구성해 토론회 내용과 진행방식, 참가자·일정 등을 합의할 예정인데 그 활동 정도에 따라 대토론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점은 당연하다.

대토론회 성사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직까지 학교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원 학생회는 지난 1일 학교 당국에 '동국개혁 대토론회 제안서'를 제출, 지난 8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대토론회의 명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참여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대토론회가 지난 93년과 94년에 학교당국과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제26대 총학생회장

이 사퇴함에 따라 학생회기반이 흔들리면서 무산됐던 '동국중흥안마당'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까 염려스럽게 한다. 동국중흥안마당은 제25대 총학생회(회장=최순호·당시 국교4)가 제안한 것으로 '학원의 주인으로서 학교발전의 의지를 한자리에 모으고 구체화시키자는 운동'이었다.

대토론회 성사의 관건은 학교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부리가 아니다. 유덕기 교수회장은 행정지도력과 집행능력이 있는 학교 당국이 대토론회를 주관해 학내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학부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정치4) 이미성(국교4) 부총학생회장도 대토론회의 실질적 성패는 학교 당국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에 있다고 밝힌다.

학교 당국의 대토론회에 대한 적극적인 성의있는 자세는 동국발전의 원동력이다. 학교당국의 활발한 참여 속에 '동국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김미경 기자

브리핑

선지식을 찾아서

전 해 주(불교대 불교학부)

산동네에 사는 농부가 하루는 나무하러 갔다가 절에 들렀다. 오래간만에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조사당에도 들렀다. 조사당에는 옛날 절을 창건한 스님을 비롯하여 그 절과 인연이 많았던 큰 스님들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다. 그 농부는 맨 처음 모셔진 분부터 차례로 삼배씩 절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을 하려다 쳐다보니 그분은 얼마전에 돌아가신 주지스님이였다. 그러자 그 농부는 "어! 아는 중이네"하면서 절하러다 그만두고 그냥 돌아서 가버렸다. 그 주지스님은 나무하는 일 때문에 가끔씩 자기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한 적이 있었던, 자기가 잘 아는 스님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농부처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존경심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게 여겨지는 탓인지 모른다. 공자도 옆집에 사는 사람이 동가구(東家)라 불렀음이 보인다. 이웃사람이 자기 사는 동쪽 집에 사는 구라는 사람정도도 공자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화일경에는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가 있다.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 부처님세체를 들고 자신도 부처님과 같이 피고져 결심한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성취하도록 하며 그 방법으로 선지식을 찾아가 보살도를 배우도록 하였다. 선재동자는 믿는 선지식들이 일러주는 대로 오십삼 선지식을 역학하면서 해탈문을 열고 드디어 보현보살을 만나 끝없는 보살행원을 성취하게 된다.

그런데 선재는 선지식들을 대면하였을 때 선지식인줄 알아보지 못한 때도 많았다. 심지어 어떤 때는 자신이 도를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구부의 여정을 쉬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주변에서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스승합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추석을 맞아 민중의 대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리운 친지들과 만날 뿐만 아니라 어른을 찾아 뵙고 많은 선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를 바란다. 우리들의 삶은 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윤회속에 있으나 그 속에서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수동정

▲이법산(선학), 흥기삼(국문학), 임기중(국문학), 홍윤식(역사교육)=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부 대경대에서 열릴 제11회 한·일 국제 학술 교류회의에 참석

▲한태성(선학)=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불교대에서 열릴 제 7회 일·중 불교학술회의에서 '한국정토신앙의 특색' 논문 발표

당신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점심때 다향관, 동국관 학생식당으로 오십시오.

북한에 사는 친구야!

우리 학교에서 북한에 보내질 음식을 만들 기금을 모았어 친구야! 미안해
고작 일주일에 1200원
일주일 배불리 먹고
금요일 점심 한끼를 굶는 우리.

그래도 잘 먹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불어와
뺏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찬바람
맞서 이겨내야 해

이 추위 지난 뒤
네 마음과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호랑이 머리 두 동강이 낸
얼어붙은 쇠창살을 녹이고
단혀진 철천만 백성들
마음의 문, 활짝 열어
하루라도 빨리 만나자

-김영숙님의 시 인용

사과대 학생회 문의 : (02)260-3636 / 북한어린이 돕기 동국대 사람들 문의 : (02)260-3243

학부학생회 인정으로 학생회 재정립 대의원, 책임감 갖고 오는 22일 총회 성사시켜야

총대 회칙개정

98학년도 하반기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오는 14일 오후 4시 총대의원회(의장=신현찬·연영4) 주최로 중앙당에서 열린다.

각 학과나 학부의 반대표, 학년대표, 전공대표, 학년학생회장 등에게 결정권이 부여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던 총학생회회칙(이하 회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결을 비롯해 총대의원회 사업보고, 선거사업, 학생대표자 성명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제안될 회칙개정안은 학부제 시행 이후 생겨난 기층 대표자들을

학생대표자와 대의원으로 나누어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반대표, 학년대표, 전공대표, 학년학생회장 △학생대표자=전공학생회장, 학부학생회장, 계열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로하는 회칙개정안이 의결되면 학부제 시행으로 생겨난 새로운 대표자들과 학생회의 활동이 근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기존 학과의 통합 등으로 혼란에 빠진 학생회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안건이 통과되려면 총회가 성사되어야 한다. 재적 대의원 총 2백40여명 중 1/3 이상 출석으로 총회가 성사되어야 하고, 출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회칙

개정안 의결의 당면과제는 총회 성사인 셈이다. 지난달 16일 열린 학생대표자회의처럼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된다면 이 안건 의결은 내년이나 그 이후로 미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현찬 총대의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권을 가진, 즉 총회의 당사자자인 대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학생회 발전을 위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총회의 성사와 나아가 회칙개정안의 의결 여부는 대의원들이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학생회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대의원들의 모자란 힘이 요구된다.

학부제 인정하는 것인가 논란

총대, 학제개편 대응위해 현실성 고려했을 뿐

회칙개정의 의의

총학생회칙에서 학부학생회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 동안 학부제 반대투쟁을 벌여왔던 학생회의 활동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6월말 신현찬(연영4) 총대의장을 비롯한 몇몇 단과대 대의원장과 학생회장 등 7인으로 회칙개정위원회가 구성돼 지난달 10일까지 3달여 동안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학부 학생회를 인정하는 회칙

안이 완성됐다.

이 회칙개정안은 학부제 시행후 새로 생겨난 대표자들과 학생회를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번 회칙개정과 관련해 학부제 시행 당시부터 반대운동을 벌여왔던 학생회가 학부제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국교4) 총대부의장은 "학부제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을 떠나 현실에 맞는 회칙을 마련해 앞으로의 학제개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

다"고 밝혔다. 또,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학부제는 옳지 않은 제도이지만 그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학우들의 의무와 권리를 저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회칙개정이 학부제 인정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즉, 이번 회칙개정은 학부제라는 제도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학부제 시행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학생회의 밑바탕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남대철 기자

교수, 제자 1인 취업운동

학생 취업 위해 동문회사 방문활동 펼칠 예정

4학년 취업예비생들의 취업을 위해 교수들이 앞장서 나선다.

취업과(과장=김병수)는 오늘(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교수, 제자 1인 취업, 동문회사 후배 1인채용운동'을 펼쳐 전공교수 및 동문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운동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취업홍보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들은 전공별 진로진도 및 상담, 각 기업체 및 관련 기관방문·취업알선 추진, 전공별 기업체 및 관련 교육 기관방문·취업알선, 동문기업체 방문

후배 1인 채용운동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9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제작할 예정이었던 전자이력서는 이력서 제출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한 관계로 제작이 연장됐다.

이와 관련, 취업과 김병수 과장은 "천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해야 제작효과를 볼 수 있으나 현재 3백여명의 학생만이 신청했을 뿐"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제작돼 취업활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대철 기자

중도 2열람실 철야개방 중간고사 맞아 23일까지

중앙도서관(관장=임호일·독문학)은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해 오늘(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도서관 4층 2열람실을 철야개방한다.

이번 철야개방기간 중 도서관 현관은 자정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폐쇄된다. 이와 관련 도서관의 최봉주 열람계장은 "이번 철야개방기간에는 도난사건이나 여타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용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철웅스님 초빙법회 내일(13일) 정각원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내일(13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철웅 큰스님(대구 성정암)을 모시고 고승초빙법회를 개최한다. 정각원 관계자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청량한 법음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정보대학원 특강 '정보화시대의 한계'에 대해

언론정보대학원(원장=황창규·경영학)은 오늘(12일) 90주년 기념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정보화시대의 한계'에 대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의 연사는 윤여준 객원교수이며, 신문방송학과와 후원을 받아 치러지는 것이다.

취업자 수시모집 특별전형

99학년도 취업자 수시모집 특별전형의 원서접수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다. 취업자 수시모집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야간개설 학부(과)정원의 10% 인원을 선발, 5개 학부(과) 36명을 모집한다. (영문5명, 경제통상학부 10명, 경영학부 11명, 회계학부 6명,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4명)

고등학교 졸업후 5년이상 산업체에서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모집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30일 있을 예정이다.

열린 동연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동아리 연합회(회장=박영민·건축 4)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동연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실업의 시대, 생존의 권리를 지켜내자'라는 주제로 거리 전시회를 비롯, 실업기금 마련을 위한 먹거리 장터, 공동시연, 공동논쟁집 발간 등이 진행된다.

또한 일반 학생들에게 동아리에 들지 않아도 무예를 익힐 기회를 접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무예학교도 마련된다.

무예학교는 지난 8일부터 오늘(12일)까지 도서관 앞과 동아리 연합회실에서 신청을 받는다.

일정은 △경당=13일~15일 오후 5시~7시 △택견=13일~15일 오후 5시~7시 △선

무=13일~15일 오후 5시~7시 △검도=13일~15일 오전 7시~9시이다.

졸준위, 앨범비환불 오는 22일까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기석·물리4 이하 졸준위)는 오는 22일까지 졸업앨범비를 환불해준다.

환불 대상은 촬영을 하지 않고 앨범비를 납부한 학우나 중복하여 납부한 학우에 한하며,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학생회관 1층에 있는 졸준위실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불학성이나 촬영을 하고 휴학을 한 학우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졸업앨범 추가 접수도 받고 있다.

단과대 소식

생지대(회장=성나현·응생3)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풍년제'를 연다. △13일=개막식(풍년기원제) △14일=심야영화제 △15일=폐막식 및 풍년가요제를 한다.

사범대(회장=이선진·수교4)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서른 눈 높이 사랑'이라는 모토로 '학림 축전'을 개최한다. △12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최운순(수교81)열사 추모제를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총무로 지하철역에서 사범대 학생들이 쓴 시를 가지고 시화전을 △16일에는 폐막식 및 학림가요제와 함께 김정훈(국교 90)씨 돌기 하루주점을 연다.

문과대(회장=최진범·영문4)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명진제를 한다.

시과대(회장=이종렬·정외4)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동안 능금제를 연다.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개혁 우수대학

열에 여덟 "선택권 보장 안된다"

구성원간 합의 통해 수요자 중심교육 이뤄야

'학생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개편 분야'에서 교육개혁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지만 본교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지난 9일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백93명 중 3백17명(80%)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결국, 교육부가 선정한 우수대학이 교육 수혜의 당사자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극영화과의 한 학생은 "우수대학 선정에 많은 학생들이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교육부 개혁자체가 문제점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진행되는 등 방향 설정부터 잘못돼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부가 우수대학을 선정함에 있어 안은 들여다보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은 본교가 선택한 학생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개편 분야의 경우, △모집단위의 광역화(8점) △학생의 전공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25점) △학생 전공의 실질적 보장(30점) △전공선택권 보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 노력(7점) 등 총 70점 중 63점이 제도 시행부분에 책정되어 있다. 반면 부작용 해소 노력에는 7점만이 배당되어 있어 실질적인 학부제의 평가보다는 단순히 '겉만 훑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결만 보기가 평가기준 때문에 10명 중 8명의 학생이 '선택권 보장 안된다'며 우수대학선정에 대해 '시큰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교당국은 3년연속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 진정한 수혜자 중심 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수혜자 중심교육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은 교육개혁 추진에 있어 교육부와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합의를 통한 결정일 것이다.

남대철 기자

BSC, 매경과 산학협력 체결

야간·주말 이용해 외부경영자 재교육 ... 재정수입증가 기대

본교 BSC(Business Solution Center)가 매일 경제 신문사 산하 경영소프트웨어 연구원(원장=채서일)과 산학협력 계약을 지난 2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외부경영자 재교육, 창업교육 등의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본교 BSC에서 실시하며 경영소프트웨어 연구원은 수강생 모집등을 담당한다.

또한 앞으로는 경상대 교수들이 프로그

램을 개발, 직접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될 전망이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이러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은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실시되며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된다.

이와 관련 경상대 박강식(경제학)학장은 "이번 산학협력 체결은 건물임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및 경상대교수들의 현장실습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사랑의 송편... "예쁜 송편을 만들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는데..." 지난달 30일 추석을 앞두고 여학생부처는 '송편배우기·사랑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만들어진 송편은 중구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진야 기자

이전부터

홀로서기

O...총장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가운데 교수회가 유독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는데.

직원노조·학생회 등은 전 동국인의 의견을 모아 선출하려는 반면, 교수회는 "교육·연구의 중심 주체는 교수! 총장후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주체 역시 교수!"라며 교수들만의 직선제를 고집하고 있다.

이에 회전문대자 왈, "하나돼야 할 이 시기에 홀로서기가 웬말?"

컴사수대

O...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최신 설비로 개장한 BSC에 중간고사를 앞두고 찾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모여드는 학생들로 자리가 모자라 가방을 메고 앞사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기 일쑤라고.

하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온데 간데 없고 가방이 사람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애대우고 있으니...

이에 차례를 기다리는 한 학생 왈, "세진컴퓨터는 개가 지키고 BSC컴퓨터는 가방이 지키다!"

따라와

O...불량대학(?), 우수대학(?). 96년부터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지원을 해왔는데,

정부왈:난데 말아야, 교육 개혁안을 내놨어. 나 따라오면 팍팍 밀어줄게.

정부왈:개혁신 내뽐으니 분? 정부왈:또 난데 말아야, 개혁안을 또 내놨어.

정부왈:또? 못살아! 이를 지켜보던 영란대학 왈, "우수대학은 지원받고 불량(?)대학은 국물도 없는 현실이 너무 슬퍼!"

취도 못 먹나!

O...무관심인가, 무식인가! 졸업예정자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고안된 전자이력서 제작이 자꾸만 미뤄지는데,

이유인즉, 1천명 이상의 이력서를 CD에 담아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신청자는 겨우 3백여명 뿐이기 때문이라고.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취도 못 먹나!"

전공 및 학과결정

1998년도 전공 및 학과결정일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대 상 : (1)96, 97학년도 학부, 계열 입학생 중 급학기 2학년 재학생 (2)97, 98학년도 1학기 학부, 계열 편입생 중 급학기 2학년 재학생
 - * 단, 불교학부 신학전공생, 미술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아) 제외
- 일 정
 -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8. 10. 19(월)~10.21(수)
 - (2) 결정 및 확정공고 : 98. 10. 27(화) 이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소속대학 교과과
- 신청방법 : 본인이 소속된 학부(계열)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두 지원한다. (동일 전공이나 학과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1)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와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적성과 희망전공을 숙고한다.
 - (2) 소속대학 교과과에 비치된 전체 성적순위에서 본인의 성적을 참고한다.
 - (3) 일단 접수된 신청원은 취소 및 정정할 수 없다.
 - (4) 소정기간에 접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학교에서 임의배정한다.

교무처장

복수전공 이수신청

신규요제도에 의거한 98학년도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대상 : 98학년도 2학년 2학기 재학생 중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
- 일 정
 -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8. 10. 28(수)~10.30(금)
 - (2) 결정 및 확정공고 : 98. 11. 10(화) 이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소속대학 교과과
- 신청방법 : 원칙상 계열제한없이 모든 전공(학과)에 2개 전공까지 지원가능하다.
- 제한사항
 - (1) 비사범계열 학생이 사범계열로의 신청불가(사범계열내에서는 가능)
 - (2) 서울, 경주캠퍼스간 교차 신청 불가
 - (3) 예체능계 전공(학과)신청서 해당전공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 유의사항
 - (1) 96년 이전에 부전공을 허가받은 후 급학기내 복수전공이 허가된 경우 부전공이수는 당연 자격상실한다.
 - (2) 개인별로 학업지도교수 및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학과)의 소속교수와 면담을 통하여 복수전공 신청여부를 결정한다.
 - (3) 일단 접수된 신청원은 정정할 수 없다.

교무처장

98-2학기 제2차 외국어교육원 특강

구분	ENGLISH CONVERSATION				TOEIC	LISTENING	
	BASIC	I	II	III			
오전	07:50~08:50	Angelika Gatos (강의실 A)	Bridget McGrath (강의실 B)	Nicholas Garrison (L309)	Paul Sather (L310)	Robert Burgel (LAB C)	Ross O' Connor (LAB D)
오후	17:00~18:00	Troy Body (강의실 A)	Bruce Dawson (강의실 B)	Paul Treadway (L309)	Irene Hanssen (L310)	Joseph Schouweiler (원.수.목.금-LAB C #원208)	Eric Prochaska (원.수.목.금-LAB D #원208)
수강료	50,000원	30,000원	40,000원				
기간	98. 10. 26 ~ 12. 4(6주)						
접수처	외국어교육원(동국관 1동 2층)						
접수기간	1998년 10월 19일부터(선착순 마감)						

외국어교육원 TEL : 260-3470/1

학부제 강행만이 능사 아니다

학부제가 이미 많은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통해 행·재정지원의 차등화를 전제로 학부제 도입을 거의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대학은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잭팟에 눈이 어두워 졸속으로 학부제 도입방침을 결정하면서 대학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제는 또 다른 학내 분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2조원이라는 예산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상위권 대학을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집중육성하겠다는 연구중점 '대학원 중심대학'의 경우도,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단기간에 가시적인(불가늠한) 결과를 내려는 측면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은 결국 대학사회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만큼 장기적인 전망과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추고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은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기위해 즉흥적으로 '대학원 중심대학' 전환방침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또한 대학사회에서 대학구성원간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책임 주체이면서도 논의과정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교수들(대상은 전국 22개 대학, 5백23명)에게 '학부제'와 '대학원중심대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설문 국회 의원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이 공동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설문조사 결과, 대학교수 10명중 8명은 학부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거나, 일방적으로 강행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16.4%, 원칙은 찬성하지만 일방적인 강요는 반대 48.8%, 반대 34.8%).

학부제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전공 교육의 부실화 우려(29.42%)'와 '기초학문의 침체 내지 폐과가 우려되기 때문(28.53%)'이라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고, '대학원실상 대학특성화가 힘들기 때문(10.1%)', '의사수령 없이 교육부와 대학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8.9%)', '연구교육여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8.9%)', '인기학과 치중에 따른 구성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의 '대학원중심대학(연구중심대학)' 선정 및 집중지원에 대해서도 56.6%의 교수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 중심대학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학부 전공교육 부실로 인하여 대학원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응답이 38.08%로 가장 많았고, '대학이 대학원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할 우려 및 이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25.9%)', '석박사 등의 고학력 예비실업자 급증(17.6%)', '고급전문인력의 고령화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에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학과체계를 그대로 두고 학부제는 요구되는 분야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7.7%를 차지해 점진적인 도입과 각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에 맡겨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현행대로 시행하되 학과체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17.9%)', '복수전공·다전공 등은 학과체계에서도 가능하므로 굳이 학부제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8.5%)', '학부과정에서 전공선택을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제 설문조사 결과의 의미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

이 두 제도에 대하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있듯이 제도를 개선 실시하려면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무리없고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다. 매년 바뀌는 교육제도는 도움이 되지 않고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온다고 믿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교수가 상당수에 달한 만큼,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 시행에 앞서 연구와 교육여건의 확충·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원중심대학'과 '학부제'는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따라서 학부제의 비민주적인 강행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대학교육 주체인 교수와 학생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만이 눈에 보이는 이 제도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주요대학 전학대회 무산 원인

대표자다운 분명한 책임의식 절실

학생들 무관심 함께 풀어야할 과제

2학기를 맞아 개최되었던 각 대학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이하 전학대회)가 각 대표자들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대부분 무산돼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보통 매학기 초 열리는 전학대회는 한 학기 총학생회의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명실상부한 학생회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또한 일부대학을 제외하고 전체학생총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는 현 대학사회에서 학과나 학부 등 기층의 의견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회의체계가 바로 이 전학대회인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의 전학대회 무산은 학생회 기초조직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9월 한달 동안 진행된 전국 주요 대학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균관대-9월 9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 △연세대-9월 10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 9월 15일 과반수 넘어 성사 △영남대-9월 16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 △한양대-9월 16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 △이화여대-9월 17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 △건국대-9월 22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 △중앙대-10월 1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 10월 8일 정족수 미달로 다시 무산, 보고대회로 대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대학의 2학기 전학대회의 주역자가 '대학구조조정'과 '대학생 실업문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학내·외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학대회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지난 8일 보고대회형식으로 전학대회를 치렀던 중앙대 제민준(법4)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가 성사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운동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른 대중활동의 위축과 IMF체제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학생들의 개인중심적인 생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무산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대표자들의 무책임함에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전학대회를 준비하는 총학생회와 기층으로 이어지는 단과대, 과학생회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구성원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들이고 이 대표자들이 과와 단과대, 총학생회 사업을 핵심적으로 이끌어 가는 현실을 볼 때, 이들의 책임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오는 14일 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본교 서울캠의 신현찬(연영4) 총대의원의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대표자들이 의제나 회의의 의의에 공감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회의형태가 아니겠느냐"며 "전학대회 또한 대표자들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손으로 선출된 학과(부)이상의 모든 대표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대표자의 혁신 없이 학생회의 혁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회칙은 학생회 자치기구의 위상이 흔들리는 현시점에서 대학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와 이에 따라 증폭되는 학생회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유철주 기자

사설

경주캠 개교 20주년의 의미

'동국은 하나'이다. 오늘로 개교 20주년을 맞이하는 경주캠퍼스 구성원들에게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지난 20년간 이 대전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해석을 내려야 할 때이다.

동국은 하나라는 말의 이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국이라는 이름아래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가 하나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캠퍼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완전포함의 관계가 아닌 부분포함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가 할 때이다. 마치 동국이란 대전제 하에서 이미지제고, 교육환경개선, 경쟁력 강화라는 선결문제가 완전포함의 문제이고, 생존전략수립, 자율권 확대, 지역연계강화라는 현안문제는 경주캠의 특수한 상황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서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도 미흡했다. 그렇

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점에서 경주캠 구성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3주체들의 의견수렴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수립된 대안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나와도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난 88년 개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시했던 마스터플랜이 지금 사정되다시피 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알 수 있다.

본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듯이 지금 경주캠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이는 10년전에 제기됐던 문제와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가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멀리뛰기 위해 10년을 염두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뛰어야 할 때라는 걸 우리 모두 20주년이라는 의미와 함께 되새기자.

과거청산과 경제협력

김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일정이 끝났다. 이번 방일에서 김대통령은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파트너십 선언과 경제협력 및 일본정부의 문서화된 공식사과를 성과물로 가져왔다. 이미 새정부 출범직후 일본문화의 단계적 수용정책표명으로 일본 내부에, 한국에 대한 호감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정부는 한일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번 방문을 통해 과거부터 앙금처럼 남아있는 적대감을 해소하고, 미래동반자적 위치로 발돋움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으며, 자본주의적 경제논리에 치중된 나머지 문화적·정신적인 면에서 손해 보거나 덮어 버리는 것들이 많다는 우려가 든다. 전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다. 더불어 일본문화 수입개방 일박과 2002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의 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공존 공생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계속 불거져 나오는 어업분쟁,

정신대 문제 등의 기타 산재된 것들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으며, 예민한 문제로만 치부하여,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유보한 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무역역조현상은 물론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침예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에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도 여전히 양측에 불만의 씨를 남긴 채 매듭 돼 버렸다. 우리는 과거 성장위주 경제논리에 편승해 과거 청산은 뒤로 미룬 채, 3억불에 나라를 팔았다는 엄청난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바 있다. 단지 문서하나 체결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앞서 지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양국의 불신의 벽은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내실을 기하지는 것이다. 과거청산과 경제협력이라는 과제 중 당연히 선결돼야 하는 것은 과거청산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서두른 나머지 후회부지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방일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신대 문제 등, 과거청산 작업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심도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도 경제협력방안과 함께 같이 이뤄져야 한다.

동국발전기금 소식

기간 : 1998년 9월1일~9월30일까지

발전기금

■ 5백만원이상 기탁자

한국RF(주차관리업체) 5백만원

■ 1백만원이상 기탁자

정종팔(산업기술대학원졸) 3백만원
김미란(교육대학원) 2백만원
박정민(교육대학원) 1백만원
서영일(산업기술대학원졸) 1백만원
안규호(지역개발대학원) 1백만원
이중근(동문) 1백만원
이철호(교육대학원) 1백만원
정선일(교육대학원) 1백만원
정윤락(지역개발대학원) 1백만원

■ 50만원이상 기탁자

교육대학원
권진 50만원 권주상 50만원
권혜진 50만원 김근수 50만원
김성아 50만원 김수정 50만원
김연희 50만원 김욱기 50만원
김은아 50만원 김인근 50만원
김재우 50만원 문혜옥 50만원
민승기 50만원 박금자 50만원
박기술 50만원 박노길 50만원

박순희 50만원 박연배 50만원
박필준 50만원 봉민자 50만원
손길환 50만원 손은옥 50만원
송원섭 50만원 신은주 50만원
유호근 50만원 이경배 50만원
이상주 50만원 이문복 50만원
이민희 50만원 이상록 50만원
이정림 50만원 이정연 50만원
이준호 50만원 이효정 50만원
은은실 50만원 장영금 50만원
김희성 50만원 정현주 50만원
조상현 50만원 조장은 50만원
최경화 50만원 최유정 50만원
최진경 50만원 한성순 50만원
황금희 50만원 허종원 50만원
현병화 50만원
장락구(산업기술대학원졸) 50만원
박운제(산업기술대학원졸) 50만원
허남순(지역개발대학원) 50만원

■ 10만원이상 기탁자

교육대학원

김선진 409,800원 신남숙 409,800원
권혁대 409,800원 김경래 409,800원
김창원 409,800원 김구한 40만원
김찬호 30만원 박계숙 30만원
서정호 30만원 하경목 30만원

고유선 20만원 김성민 20만원
김미정 10만원 이원경 10만원
모승준(산업기술대학원졸) 30만원
서규석(산업기술대학원졸) 30만원
박규현(지역개발대학원) 10만원
권구현(지역개발대학원) 20만원

■ 1만원이상 기탁자

태전희 4만원
정혜연(학부생) 2만원
김상철 1만원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 1천만원이상 기탁자

서광전설산선(대표 박상근) 3억1천3백만원
(합6억1천3백만원)

■ 5백만원이상 기탁자

박경희(상대;보문사) 5백만원
임순분(불교대학원) 5백만원

■ 1백만원이상 기탁자

고영계(지도교 고은애의 부) 1백만원
곽경옥 1백만원
김갑주(경주부총장) 1백만원
김경희 1백만원 김권진 1백만원

김길호 1백만원 김도희 1백만원
김범준 1백만원 김영환 1백만원
김우동 1백만원
김중순(불교대학원) 1백만원
김탄성(부산길상암주지) 3백만원
김흥운 1백만원 목세문 1백만원
박옥정(전산원졸) 1백만원
박태언 1백만원 배기순 1백만원
서덕선(탁연스님) 1백만원
손영환(서울화화대표) 1백만원
언론정보대학원18대총학생회 1백만원
오복순 1백만원 오승근 1백만원
오영숙(명예위원) 1백만원
오영실(대각사신도) 3백만원
우경옥(불교대학원) 3백만원
유광옥(광진문화사대표) 1백만원
유동순 1백만원 윤경현 1백만원
윤재강 1백만원
이결자(대구해화여고이사장) 1백만원
이미주 1백만원
이부연(불교대학원) 3백만원
이숙영 1백만원 장영태 1백33만원
전수봉 1백만원 정근구 1백만원
정범근(능인선원신도) 1백만원
정현주(불교대98년편입) 1백만원
최수진(불교대학원) 1백만원
최옥희 1백만원 최옥희 1백만원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조희영외 임원
일동 1백만원
홍승범 1백만원 홍승욱 1백만원
홍원사(주지 동주스님) 1백만원

■ 50만원이상 기탁자

김내원 50만원
손재영(의대교과과장) 50만원

■ 10만원이상 기탁자

김수연 10만원 김옥순 10만원
김재화 20만원 김청수 20만원
박관음행 10만원 박영희 10만원
박화순 20만원 오성근 10만원
이윤준 20만원 이일호 30만원
이중운 10만원 임순자 10만원
주형규 20만원 최숙자 10만원
최효영 15만원

■ 1만원이상 기탁자

곽태희 3만원 권보상 5만원
권희은 5만원 김경남 1만원
김경록 1만원
김남순(불교대학원수료) 5만원
김남순 5만원 김대용 3만원
김명자 1만원 김명희 1만원
김양자 1만원 김경애 2만원
김현용 5만원 목진홍 1만원
문성환 1만원 박계순 3만원
박노숙 1만원 박대원행 5만원
박미영 1만원 박미정 1만원
박병식 6만원 박성철 1만원
박세현 1만원 박신자 2만원
박영희 5만원 배완대 1만원
서운석 3만원 성춘복 1만원
송춘자 2만원 신두순 1만원
양성은 3만원 유미경 6만원
유병호 5만원 이기욱 1만원
이덕진 1만원 이명숙 1만원
이순례 1만원 이윤현 2만원
이윤희 5만원 이점선 3만원
이진원 3만원 이태중 1만원
익명 1만원 임영숙 2만원
조재근 2만원 최금자(학부모) 1만원

최방지 1만원 황성출 5만원

특정목적기금

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진철) 1억원 - "생협복지관건립기금"
도봉스님(관음암주지) 1백만원 - "석림원건립기금"

동국사랑저금통

김진광(이과대학 교학계장) 27,960원
문재욱(자연과학대학 교학계장) 38,800원
이법산(정각원장) 38,140원
최수근(교내구두점)13,000원
허광도(국제정보대학원 교학계장) 23,800원

수증물품

(주)도원건업(대표 강성울):"책상 및 책장2조" 기증 - 4,200,000원 상당/공과대학 수증
유병직(전불교방송제작부장):"에블테이브 100질" 기증 - 3백만원 상당
웅진코웨이개발(대표 박용선):"정수처리기" - 20,080,000원 상당/토목환경공과 수증

문의 : 동참안내전화 (02)260-3300

사랑과 정성에 감사 드립니다.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

동약로



발전다운 발전

추석 연휴를 이틀 남겨둔 지난 9월 30일, '제3캠퍼스·불교종합병원 재정확보 공개를 위한 결의대회'가 불상앞에서 약 1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너는 어째서 해마다 등록금에서 얼마씩 빼내서 뒷주머니를 찻단 말이나? 입만 열면 '동국발전, 동국개혁'이라고 부르시면서 거품을 무는 학교야 대답을 해봐라"며 이미성(국교4) 부총학생회장이 '학생들 등록금으로 비자금용을 조성하는 학교당국에게 보내는 추석인사'라는 긴 제목의 편지글을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간다.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갈때마다 학교당국에 대한 불신이 한뼘 한뼘 쌓여 올라가는 듯하다.

문과대의 한 학생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쓰지 않고, 성과남기식 정책만을 펼치는 것은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토로한다.

추석연휴가 끝난 요즘 또다시 학내주체들의 의혹을 사는 것이 있다. 9월 한달 동안 동약을 뜨겁게 달궜던 LG경영진단팀의 '비전 21세기 동국'이 끝난지 20여일이 다 되어가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막연히 구조조정안의 수정·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거라고 짐작할 따름이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기자에게 "이러다가 구조조정이고 뭐고 다 유아무야 되는거 아니냐?"고 전한다.

학내에 '동국발전 대토론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꿈틀대고 있다. 학내문제를 각 주체들이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더 큰 동국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학교당국의 결정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추석이 지난 후 하늘은 더욱더 높아졌다. 그 하늘 아래 '우리의 등록금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써야 합니다'라는 선전물이 눈에 띈다. 저기 저 밑실에만 틀어박힌 학교관계자에게도 하늘을 보여주고 싶다는 싱거운 생각을 해본다.

김미경 기자

기획 - 실업 시리즈

IMF체제 이후 최대의 관심사인 실업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아끼릴 청년실업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정부의 대책과 현실적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아 할 것이다. 따라서 본사는 실업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실업시리즈를 연재한다.

글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실업의 원인과 사회적 문제
2. 대학생실업의 의미와 대책
3. 대학생실업해결을 위해 뛰는 사람들
4. 실업 타개책 전망

실질 실업률 17%, 실업자 3백87만명

우리 나라는 지금 대량실업과 그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실업은 IMF 위기 이전에는 2%대 약 50만명 정도의 낮은 실업률을 보여왔다가 이번 IMF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 1월에는 93만명, 7월에는 1백65만명 7.8%의 실업률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1년도 채 못된 사이에 1백만명 이상, 3배가 넘는 실업자가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8월 현재 실업자수는 1백57만 8천명, 실업률은 7.4%로 7월에 비해 실업자 수가 줄고,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발표하여 증가하는 실업률이 감소한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이는 현실과 매우 어긋난 통계의 마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첫째, 정부 통계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

재벌체제·IMF정책·정리해고가 낳은 대량실업

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 구축 시급한 과제

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일자리가 없어 임금 없이 집안 일을 도우는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실업자이며 셋째, 최근 실태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실직상태에 있으나 실태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민주노총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월 현재 실업자는 3백87만 6천 명, 실질 실업률은 17.0%에 이른다. 결국 경제활동인구 6명중 1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대량실업의 원인

자본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실업을 낳을 수 밖에 없지만 올해와 같은 대량실업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그 원인을 알아보자.

우선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종속적 재벌체제로 대표되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들 수 있겠다. 이미 우리사회는 공황에 접어들었으며 심각한 소비의 감소, 기업의 도산, 대량실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공황의 근본원인은 우리 경제를 이끈 시스템으로서의 종속적 재벌체제의 위기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95년에 30대 재벌 5백32개 업체의 부가가치는 56조 5천억 원으로 GNP

의 16.2%를 차지하였으며(90년의 12.7%보다 4.5%나 높음), 제조업만으로 보면 95년 30대 재벌의 부가가치는 38조 8천억 원으로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의 41.0%에 이른다. 95년말 현재 30대재벌은 금융기관 전체 대출금의 22%(2백54조)를 차입(그중 1백90조가 재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상호자금보충용)하였다. 재벌들은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정경유착과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엄청난 공룡으로 성장해왔으며 중북괴투자, 문어발 경영, 족벌 경영이라는 재벌3악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재벌들은 97년 1월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줄줄이 삼미특수강,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쌍방울, 뉴코아 등이 부도 또는 부도유예가 이루어졌다. 이는 마치 거대공룡이 어느새 전멸하였듯이 버티며 위의 덩치큰 큰 재벌들이 전세계적인 과잉중복투자와 경기의 침체를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것이다.

둘째로는 불합리한 IMF의 재정긴축, 고금리정책을 들 수 있겠다. 그동안 IMF는 재정긴축, 고금리, 엄격한 BIS기준을 강요하여 이는 은행과 금융권의 신규대출 중단으로 이어지고 이를 견디다 못한 기업의 도산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대량실업을 낳게 되었다. 이는 IMF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로는 정부와 재벌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인수합병시 정리해고, 근로자과연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법제화 하였으며, 최근 공공부문과 금융권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굵직한 사례들만 들더라도 97년말 9개 종합금융사 영업 정리, 98년 6월 18일 55개 사업장의 퇴출발표(약 4만명 정리해고), 6월 28일 5개 은행의 퇴출(약 1만명 실업자 발생), 9월말 약 32%의 시중은행원 정리해고 등등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공기업 민영화, 분할매각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정리해고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게 된다.

대량실업과 사회·경제적 문제

대량실업은 실제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낳게 된다. 이미 자주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일가족 집단자살, 가정폭력의 빈발, 집없는 노숙자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업으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은행원, 대기업 노동자, 사무직 등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가진 자들은 "이대로"를 소리높혀 외치고 있다. 이는 곧

계급·계층간 갈등과 사회적 통합의 저해, 폭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실업률 8%에서 삼정 습격, 약탈 등의 사회적 폭동이 일어났으며 멕시코에서는 무장반란농민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즉 실업률이 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반정부 폭동과 시위 등의 집단적 행동으로 치달게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고실업으로 인해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이는 또 경기의 장기침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 세수의 차질을 빚게 되며 이로 인해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각종 세율을 인상할 경우 조세마찰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우수한 두뇌가 사장되고 인력의 해외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사업장에서는 고용불안에 따른 노사갈등과 노동자의 사기 침체와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대량실업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 올바른 구조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울러 모든 실업자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정망을 완벽히 구축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아닌 민주·진보적 구조조정의 대안이 이루어져서 정경유착과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내수위주의 민족경제를 수립하고 과도한 국제적 투기자본을 규제하여야 한다.

김태현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추진위원장

국가보안법 관련 전대기권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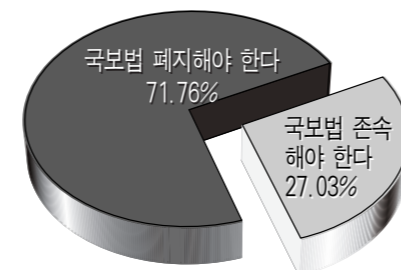
대학생 72% “국보법 폐지해야 한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김세규·경기대학보사 편집장)이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전국 52개 대학 8백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대학생 국보법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국대학생 72%가 '국가보안법(이하·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국보법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양심의 자유 구속(33%)'을 들어 초헌법적 내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학문 사상의 자유침해(28%)',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24%)', '문화예술등 표현의 자유억압(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대학생은 27%로 나타났다는데, 그 중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는 이유가 25%로 가장 많았다.

'국보법이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해방 이후에 그대로 계승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53%)'가 '알고 있다(46%)'보다 높이나 국보법의 문제점이나 피해 등은 상대적으로 많



국보법 존폐 여부

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 기원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8·15대사면을 기점으로 활발한 논쟁을 벌였던 준법서약서와 관련된 질문 '정부가 양심수 석방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48%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27%이 법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대기권 공동기자단



명동성당 농성단을 찾아

준법서약서 작성 과오 인정·살신성인 자세로 투쟁할 터

등도 많았고 부모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인다.

앞으로의 활동은 두명의 적은 인원을 생각하면 상당히 빡빡하다. 민중민권수호와 사상 양심의 자유보장을 위한 대정부 8대 요구안과 관련해 지난 2일 정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상황이고, 10일에는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서명운동 발대식, 사면자 1차모임, 15일에는 농성단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수 전원석방의 날 선포, 5인 면담(농성단, 한총련학부모협의회,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박상천 법무부장관, 김대중 대통령)요구를 피력할 것이고 24일 탄압받는 민중과 양심수를 위한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31일은 양심수전원석방의 날로서 반드시 사수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12월10일 50주년을 맞는 세계 인권의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김태완씨는 지난 9월 30일까지

명동성당을 떠나지 않겠음 가석방이라는 족쇄(?)때문에 재수감한다는 경고장까지 마포경찰서에서 받은 실정이다. 하지만, "지급도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을 생각하면 재수감 협박은 정부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김태완씨는 강조했다.

농성의 길이 때론 힘들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지방문을 해주시는 학우 여러분과 재야단체 어르신, 앞에서 함께 농성하시는 노동자 분들을 보면 힘이 절로 난다"고 정성씨는 미소를 지으며 "내 건강악화문제와 또 감옥살이를 하면 어찌나하는 부모님의 걱정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주체적·능동적인 마음으로 개혁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굳건히 다짐했다.

준법서약서를 쓰고 난 이후 마음 고생이 많았을테고 농성을 시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두 사람. 우리 곁에서 농성을 하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신성인 정신으로 톨툴 무장한 이 두 사람은 양심수들에게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이다.

오인택 기자

노숙자 생활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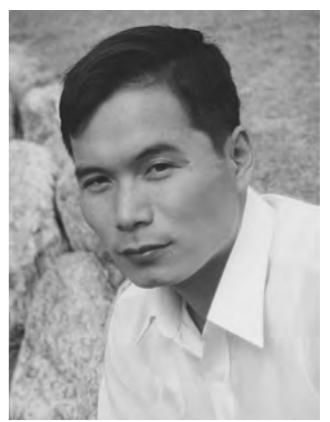
극심한 경제난으로 직장도 잃고 가정도 버린 채 오늘도 거리에서 밥을 지새우는 서울시내 노숙자들은 3천여명. 숫아날 구멍은 보이지 않고 한끼 식사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이상 낯의 일이 아니다. 이에 서울역과 서소문 공원을 찾아 노숙자들을 통해 IMF로 멎들어 가는 우리 사회를 돌아본다.

편집자

그들에게 '내일'은 없다

실적이 노숙의 주원인... 밥보다 일자리 제공 급선무

자원봉사자 이영만씨를 만나
"고통을 나누고 싶어요"



서소문 공원에 위치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산하 '아침을 여는 집'에서 노숙자를 위해 자원봉사하는 이영만(서강대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씨를 만나 노숙자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이내 서울역으로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며 자리를 뒀다.

박씨가 자리를 뜨고 난 얼마후 김정곤(가명, 34)씨가 "답배 있느냐?"며 말을 걸어왔다. 이번 추석은 고향인 전주에서 보내고 왔다는 그는 다른 노숙자와는 달리 비교적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다. 박동식씨와 마찬가지로 실직노숙자인 그는 휴대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회사가 부도나면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노숙을 한지가 벌써 3개월째인데 정말로 못해먹을 것인데. 자네도 알겠지만 대부분의 노숙자가 자기직장을 잃으면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아닌가. 이제는 가족들 보기도 민망하고 내 마누라하고는 거의 이혼직전인데. 다행히 이번 추석에 내려가서는 가족들에게 일자리 구하러 서울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노숙자를 살린다고 희망의 집인가 뒷간을 접수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모르겠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도 문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밥만 줄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어"라며 서울시와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보였다.

고향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못간다고 그는 앞으로 좀 더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자신의 작은 포부를 밝혔다.

얘기를 끝낸 후 김씨와 함께 서울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역 뒷편 계단에는 급식을 받기위해 이미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박동식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서울역에서 하루일정(?) 중 마지막으로 배를 채운 사람들은 하나, 둘 자신의 잠자리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돌린다. 서울역 지하도, 서소문 공원, 종묘공원 등으로 말이다.

김정곤씨는 헤어지기 전 한마디 한다며 말한다. "저기 누워있는 사람들 좀 봐. 저 사람들을 낚아라고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남일 것이고,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친근한 우리들의 형제일 것인데. 학교 가서 잘 생각해 봐"

밤 12시가 가까운 시각.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도로 들어섰다. 아직도 잠을 청하지 못한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옆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이의 시선에는 아랑곳 하지않은 채, 각자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숙자들이 또 하룻밤을 나기 위해 종이와 신문지로 자신의 몸을 덮고 있었다.

있어서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이어 발걸음을 급속소속으로 돌렸다. 사람들이 잔디밭 곳곳에 신문을 덮고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급식소 앞 잔디밭에서 막 잠을 자려던 박동식(가명, 44)씨를 만났다. 잠을 자려고 해도 너무 추워서 잠이 안온다는 그는 이번 달로 노숙생활 8개월째라고 한다.

"IMF가 터지고 부도가 난 회사는 그래도 양반이야. 나는 제지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우리회사가 결정적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이 김영삼 정부때의 금융실명제 이후부터지. 그러다가 작년겨울에 망해 버렸어"라며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박씨에게는 현재 부인과 중학생인 두 아들이 있다. 회사가 부도난 후 박씨는 울해 초 세 식구를 모두 자신의 고향인 대구로 내려보냈다. 그 이후로 그는 서울역과 서소문 공원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 6시에 서울역에서 나눠주는 빵과 우유를 먹고 공원에 잠시 있다가 용산역으로 가지. 거기서는 밥도 주고 빵도 주거든. 그리고 여기 서소문 공원으로 와. 아까도 봤지만 3시 30분부터 저녁밥 식권 나눠주잖아. 여기서 그렇게 저녁을 먹고 서울역으로 가네. 9시부터 또 밥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한다고 보면 될 것인데"라며 그의 하루 생활을 얘기한다. 덧붙여서 그는 현재의 노숙자들은 예전과 같이 건설현장의 잡부와 같은 소일거리마저도 사라지면서 일을 하려는 의욕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그저 급식소 밖에 의지해 살아가는 형편이라고 토로한다. 그리고는

10월 8일 오후 5백여명의 노숙자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서소문 공원을 찾았다. 이미 오후 3시 30분부터 저녁 급식의 식권을 받기 위해 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기름기 없는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 각자의 손에 있는 집가방 등은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노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대화신문 기자인데요 취재 좀 할 수 있을까요?" 본 기자가 사람들의 무리로 들어가 취재 의사를 밝히자 이내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진다. 서소문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에 따르면 이들은 의무의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인가? 대화생이야?"라며 한 젊은 남자가 기자에게 말을 걸어온다.

이어서 그는 "뭘, 학교에서 보고선가 뭐가 숙제를 내워서 여기 온 것 같은데, 그거 할려고 왔으면 그냥 가는 것이 좋을 것인데"라며 냉담한 얼굴을 보였다. 자신들의 생활상을 알기 위해 이미 서울 시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나 사회사업학과와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약간의 대화가 오가는 사이 식권배급이 끝나고 본격적인 저녁식사가 시작되었다. 이날 저녁식사는 배추된장찌개,국과 밥, 그리고 김치 몇조각.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찾아 '게는 감추듯' 밥을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운다. 이날 급식을 담당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산하 '아침을 여는 집'의 직원 김종현씨는 "서소문 공원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다섯 정도의 '가족' 노숙자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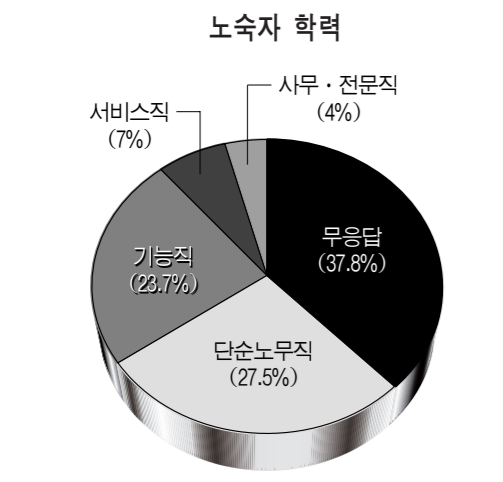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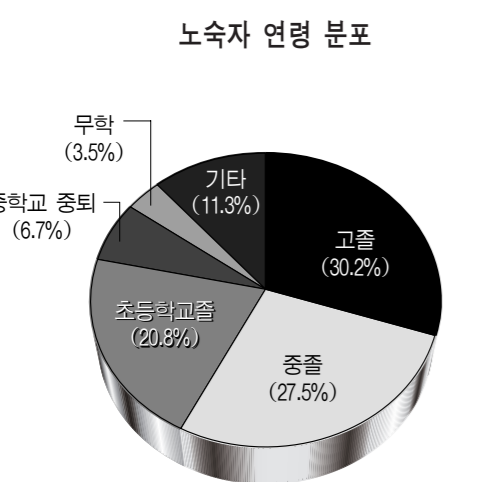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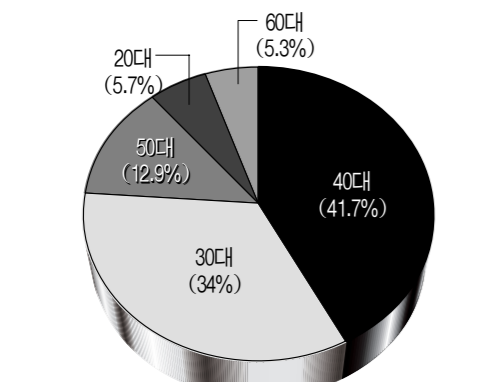
얼마 후 어둠이 짙게 깔린 서소문 공원을 다시 찾았다. 아직은 이른(?) 시각이어서인지 공원 곳곳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얘기를 하고 있다. 대화신문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그들 틈에 끼었다.

"당신이 학생 기자라고? 근데 기자를 너무 하더구만. 얼마전에 요양 저 빨간건물에 있는 00일보랑 00일보 기자라는 놈들이 왔는데, 우리를 완전히 부랑민 취급하면서 뭐라고 손 쓸 일 없어. 사회불안세력인데 어찌네 하면서 써놓았어구만"이라며 한 노숙자가 불만을 표시한다.

이어서 공원을 둘러 보았다. 기차길 옆으로 여러 개의 천막과 텐트가 자리를 잡고 있고 공원 담에는 며칠 전부터 내놓은 듯한 이불들이 널려 있다. 공원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자 2개의 천막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모두 경상도에서 함께 올라왔다는 그들은 2개의 바둑판을 놓고 내기 바둑을 두고 있다. 모두들 바둑에 열중하고

노숙자 면담조사 결과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회장=심철호) 부설 사회조사연구소가 지난달 20일부터 열흘간 서울지역 노숙자 1천5백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9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 각 학과 석사, 박사학위과정
2. 모집학과 및 인원수 : 각 학과별 약간명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사, 미술사, 철, 국민윤리,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농업경제, 지리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사, 미술사, 철, 국민윤리,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경제, 경영, 무역, 회계, 농업경제, 지리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반도체과학, 가정, 농, 일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가정, 농, 임
공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기계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예체능계	연극영화, 체육, 미술	연극영화
경주 캠퍼스	한문, 조경, 전자계산, 안전공, 한의학, 의학	한의학, 의학

※ 본 대학원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에 수료가능함.

☑ 지원서교부 : 98. 10. 7(수)~10. 15(목)
☑ 지원서접수 : 98. 10. 14(수)~10. 15(목)
지원서는 09:00~17:00까지 본 대학원 교학부에서 교부 및 접수함.
(토요일 및 공휴일은 본교 학술문화관 수위실에서 교부함.)

☑ 전형일시 및 장소
전형일시 : 98년 10월 23일(금) 10:00부터
장 소 : 시험당일 본 대학원 계시관에 공고
(면접은 학과별 실시)

합격자발표 : 98년 11월 2일(월) 자동응답시스템(ARS)
이용번호 : 700-2111

☑ 전형방법
• 석사학위과정
1) 필기고사 : 영어, 전공
2) 구술시험
※ 구술시험은 각 학과별로 실시함.
※ 영어시험은 4개 문항(독해력 측정문제)이며, 전공시험은 학과별로 공동과목과 세부전공과목으로 구분하여 출제함.
※ 제2외국어 과목(해당학과)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일어, 한문Ⅰ, 한문Ⅱ, (불교한문), 중 택일
(단, 법어는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한문Ⅰ은 철학과와 동양철학전공자, 한문Ⅱ는 불교학과지원자에 한함)
※ 석·박사과정 동일 출신이 아닌자도 응시할 수 있음(한외, 의학과는 제외)

임시안내 인터넷주소 : http://www.dongguk.ac.kr
E-Mail : anny@cakra.dongguk.ac.kr, bskkk@cakra.dongguk.ac.kr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260-3093~5, FAX : 260-3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학 원 장

동국법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의 밤

"법대 발전이 동국 발전"

존경하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님, 그리고 법과대학 발전을 염원하시는 학부모님 및 불교계 지도자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동국법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동국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 행사에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98년 10월 21일(수요일) 19:00
장 소 : 동국대학교 90주년기념문화관 그릴

법과대학 후원회장 이 연 택
법과대학 동창회장 오 진 모
법과대학 학 장 연 기 영

대의원 총회

일 시 : 98년 10월 14일 오후 4시
장 소 : 본관 중강당
대 상 : 서울 캠퍼스 2백40여 대의원
(반대표, 학년대표, 학년학생회장, 대의원장)

- 보고 안건
 - 총대의원회 사업보고
 - 총학생회 사업보고
- 논의 안건
 - 회계계정의 의의 설명
 - 학제 개편과 학부제에 대한 대응방안
 - 대의원의 지위와 역할
- 의결 안건
 - 총학생회 회칙개정
- 특별안건
 - 선거사업
 - 학생대표자 성명서
 - ※ 대의원들은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대의원 명단은 10월 12일부터 공고됩니다.)
 - ※ 참석하신 분들께 기념품을 드립니다.
(대의원의 지위와 역할이 적혀있는 전화카드)

역사앞에 당당한 2백40대의원의 자존
30대 총대의원회

북한 어린이를 돕자구요!

청년대학생, 이념 초월한 동포애 구현해야

금요일 점심시간이면 동국관 식당과 다 향관 식당 앞에서 모금함을 든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점심 한끼를 굶으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를 돕읍시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난 9월 11일부터 점심 굶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과대 학생회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사과대 학생회는 동국관 식당 앞에서 3시간 가량의 퍼포먼스, 구호 등을 통해서 굶주림과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의 참상을 알려내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성과로 모금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선뜻 1만원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돈은 JTS(JOIN TOGETHER SOCIETY)라는 국제기구에 전달돼 영양식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 이 영양식은 나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로 보내져 북한 어린이를 돕게 된다

우리에게는 그다지 큰 돈이 아닌 점심 한끼값을 모으는 행위가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에게는 생명의 젖줄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홍석균(사회과학계열 1)은 “나의 작은 노력으

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북한 어린이 돕기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사과대 학생회는 이외에도 동국관 입구의 대자보 활동과 설문 조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종렬(정외4) 사과대 학생회장은 “우리가 금요일 점심 한끼 굶으며 모금을 하는 목적은 단지 남아도는 것을 덜어 그들에게 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함께 느끼는 나눔의 운동을 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라고 밝혔다. 더불어 몇 년 전 르완다, 소말리아, 이디오피아를 보며 인간애, 인류애를 외친 것을 기억하느냐며 “지금은 이념에 가리워 잠시 잊었던 동포



동국관식당 앞에서 북한어린이 한생명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애를 기억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섯 살도 채 안돼 죽어가는 어린 생명앞에 더 이상 이념은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국관 입구에는 북한 어린이에게 보내는 한 학우의 편지가 붙어있다.

“나는 믿고 싶어. 우리가 통일이 된 그 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우리가 북한 어린이를 위해 선뜻 한끼의 식사를 희생한다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은진 기자

‘추석’ 달에 거는 기대 달하나 건강에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은 여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한다. 올해는 더욱 그러하다. 4일간의 추석연휴 때문일까, 지난 여름의 지루한 홍수와 IMF를 견디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기본분조차 모르는 정치인들이 청명한 가을하늘이라도 대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리라는 기대감 때문일까?

참으로 지난 일년간 우리 생활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 소득은 8년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IMF의 명분하에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으며, 그토록 심했던 가뭄으로 열망했던 비는 기습성폭우로 발전해 전국을 골고루 돌아 수백명의 귀한 목숨을 앗아갔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은 되지 않아 남학생은 군대로 여학생은 결혼하려는 연령층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대처하는 사회지도층의 마음가짐은 조금도 예전과 달라진 바 없어 더욱 답답하다. 마치 구조조정을 몇 퍼센트까지만 하면 우리경제가 금방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통째로,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된다고 생각하고 딱깎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교수 연구비에도 세금을 징수하려는 징수과와 밖으로만 돌려 투쟁하는 장외활동과, 이러한 기득권 세력의 위기대처 능력으로는 그 극복의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아 더욱 안타깝다.

이제 국가 장래의 기대를 걸만한 곳은 우리 학생들 밖에 없다. 언제나 국가에 위기가 오면 우리 학생들은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주체세력이 되어 왔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부터 거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과다했던 소비생활부터 점검해야 한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부모님께 돌려 드려야 한다. 공중전화보다 10배나 비싼 핸드폰도 반환하고 강의실에선 모자도 빗고 화장도 지우고 부처님앞에 합장하고 선 그 마음으로 운동화 끈을 다시 묶어 힘찬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함은 물론이요, 패기있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만드는 데 힘모으고 이웃을 일깨워야 한다. 동국대학의 학생들이여! 여기에 앞장 서 달라. ‘생각은 10년 후 소비는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 추석은 뿌듯한 마음으로 보름달을 맞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나 자신도 이번 추석의 보름달을 보며 반성해 본다. 얼마나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위해 잡 설쳤으며 얼마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했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얼마나 연구를 위해 노력했는가를.

작년과는 달리 다행히 이번 추석은 날씨가 청명하여 전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었다. 내년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남 경 수 의과대 의학과 교수

알림

제 1255호 달하나 건강의 제목 ‘실패’를 ‘교언영색과 강의목물’로, 내용중 교언영색선의인을 巧言令色鮮矣仁으로, 강의목물근인을 剛毅木訥近仁으로 바로잡습니다.

“이제 물러 설 곳이 없다”

학내주체들 대부분 무관심 ... 분리수거조차 거의 안돼

본 지면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학내 주체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문제를 근거리 접근법으로 다뤄 시리즈를 쓴다. 편집자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 1. 학내 환경문제 진단
- 2. 학내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 3. 학내환경문제 대안찾기

공초, 종이, 플라스틱을 마구 집어넣으니, 원”이라며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이춘영(65) 청소 용역원은 불만을 토로한다. 하루에 약 5톤 가량 배출되는 쓰레기. 대부분이 분리 수거가 되지 않은 채 소각장으로 온 것이라 용역원들이 다시 재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지난 96년도에도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아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쓰레기를 분리 후 타는 것은 학내에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만 매립지로 보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각로가 식당(명진가든)의 뒷쪽에 있어서 식사를 하는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캠퍼스에서도 소각장에서 나는 냄새를 이유로 수요일과 목요일은 소각장 가동을 하지 않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또한 내년 2월 준공예정인 톨비니관도 소각로 주위에 인접해 있어서 ‘소각로 폐쇄’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각로가 없어질 경우, 분리되지 않은 종이류나 작은 플라스틱류를 학내에서 태우는 대신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데, 그 구입 비용이 한달에 약 1천만원 이

상야 든다고 관재과에서는 전한다.

이에 따라 학교측에서는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지난주부터 우선적으로 분과 직원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에 자신의 부서를 쓰는 분리수거 실명제와 쓰레기 봉투가 차면 자신이 직접 갖다 버리는 셀프수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집에 갈 때 자기의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도입된 것이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는 서울캠은 남은 음식을 외부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경주캠 기숙사는 학교 자체에서 잔반 처리기를 통해 사료로 만들어 재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은 음식물의 처리비용이 적지 않게 들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두는 통이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가 심해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음 문제

학생회의 집회나 학우들의 공연이 있을 때 수업을 하던 교수들이 뛰어 나와 ‘조용히 하라’며 주의를 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절대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소음공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지

만, 학교측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김낙년(경제학)교수는 “대운동장에서 연습을 하는 풍물패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수업을 할 수 없었다”며 학교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별반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경주캠의 경우에도 원효관 4층에 있는 소강당1과 2에서 수업과 공연이 겹치는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모두 수업을 할 권리와 학생들의 공간활용의 권리와에서 나타나는 마찰로 인식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학내의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재과의 김계현 계장은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탓할 수는 없지요”라며 “학교에서 시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한해서는 방음벽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소음과 공해에 기여(?)하는 것 중의 또 하나는 학내의 많은 차들이다. 주차유료화 이후에도 줄기미가 보이지 않는 차들은 학내 공간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울려대는 경적 소리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96년도까지만 해도 매달 ‘차 없는 날’을 정해서 학내에 공간 및 소음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수질 문제

수돗물을 직접 먹는 학생들보다는 매점에서 3백원에 파는 생수를 사먹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학교에서 먹는 물은 학생식당 이외의 대부분에서 생수를 이용하고 있다. 사과대의 한 학우는 “학교 물은 냄새도 나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수를 사먹고 있다”고 전해 학내 수질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학내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필터로 거른 물, 혹은 정수기로 걸러서 끓인 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은 1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교환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관리처는 수도사업소에서

정화된 물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만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물은 정수된 것입니다. 안심하고 드십시오’라는 문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캠퍼스도 좁은데 환경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지요.” 조경공사, 분리수거 등 학내 환경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관재과의 김계현 계장은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님’을 말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학내 환경 문제는 이제껏 학내 여론 수렴을 통한 실질적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어 온 문제이다. ‘쓰레기, 식수, 소음공해’ 등의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 인지로 문제 타결·노력이 시급한 때이다. 박영실·정희정 기자



소각장으로 가져온 쓰레기를 청소용역원이 다시 분리하고 있다.

영상매체비평

- TV편

쇼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노라면 문화의 시대가 아니라 그저 오락의 시대가 온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쁜 우리 토요일에서 영파위의 '가슴을 열어라'



주말과 일요일 저녁을 장식하는 각종 쇼 프로그램들, 어느 방송에서 어떤 프로



MBC는 일요일 일요일 밤에가 6시 50분부터 8시까지, KBS2의 경우 일요일은 즐거

그램들을 하고 있을까? 토요일 저녁. MBC에서는 음악캠프, 우리들의 천국, 토요일 특급이 5시부터 8시까지, 비슷한 시간대인 SBS에서는 기쁜 우리 토요일과 좋은 세상 만들기가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저녁.

위가 6시 50분부터 8시까지. SBS에서는 인기가요가 5시 10분부터 6시까지. 이 프로그램들에서 우리는 어쩌면 90년대의 정신을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가벼움과 소란스러움으로 요약될 수 있다. 흔히들 80년대와 90년대를 대비하여 말하길, 정치의 시대는 가고 문화의 시대가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노라면 문화의 시대가 아니라 그저 오락의 시대가 온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락스럽기는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놀이와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시청자의 위치에 머물러

야 했던 일반 대중들을 실질적인 출연자로 등장시키는 것이다. 특히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는 쇼 프로그램의 상식을 뒤집어 노인들을 다루는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신선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비해 일요일은 즐거위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쇼 프로그램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시청자들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캠퍼스 영상가요, 사람의 물구나무, 애국가 타자시험, 장기자랑, 뮤직비디오 제작으로 이어지는 코너이다. 그러나 동시에 시청자들을 거북스럽게 만드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성인 대학생 출연자들에게 대한 진행자의 예의에 어긋나는 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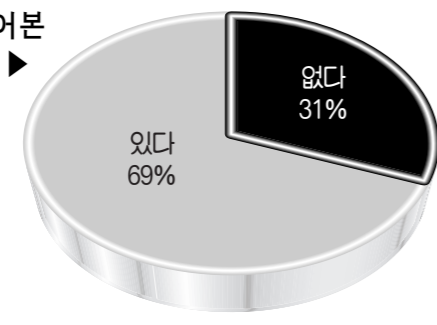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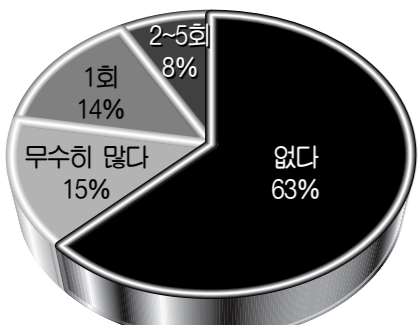
가 종종 전혀 여과되지 않고 방송되는 점이다. 출연자와 진행자가 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방송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90년대 쇼 프로그램들은 어지러운 진행 방식, 과격함 개고, 그리고 지나친 말장난으로 시청률 높이기에만 급급할 뿐이라는 비판을 이미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아마도 정확하고 예의바른 언어의 사용은 이런 비판을 넘어서서 더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홍성태
문화과학 편집위원

더이상 나를 '왕따'라 부르지 마라

67% 개인결함 지적 ... 81% 왕따 스스로 극복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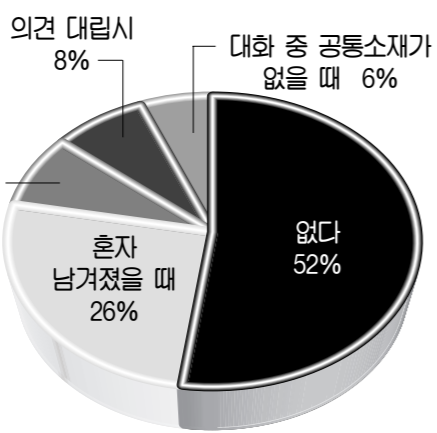
1. 왕따를 들어본 적이 있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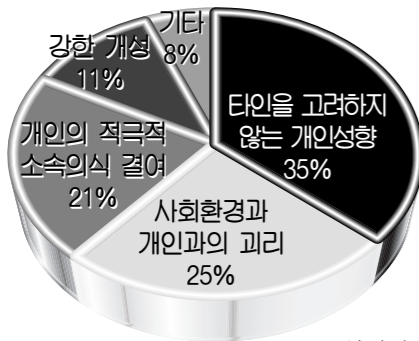
본지에서는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캠퍼스(88명)와 경주캠퍼스(71명) 1백 59명을 대상으로 대학사회에서 유행하는 '왕따' (다수에 의해 따돌림 당하는 이)라는 은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왕따'라는 은어에 대해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과 대학사회의 왕따 발생 원인과 현상, 대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보았다.

▲ 3. 대학내에서 왕따라고 느껴본 정도(1주당)

같은 곳이 없을 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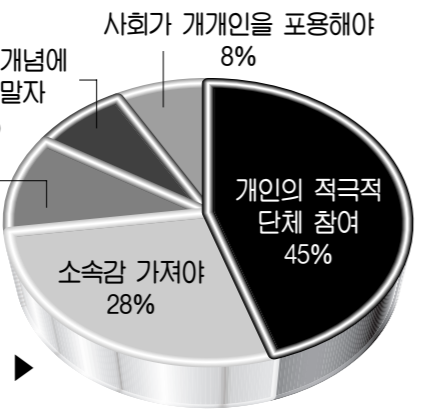


▼ 5. 왕따라고 느끼는 원인



▲ 4. 왕따라고 느낄 때

왕따라는 개념에 개의치 말자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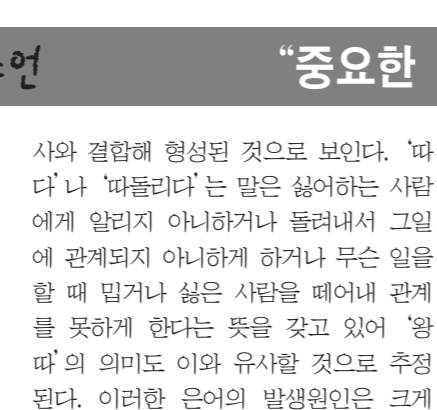


현상

'왕따'라는 은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나는 질문에 전체 1백 59명의 설문응답자 중 69%(109명)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해 본고 학생의 적지 않은 수가 왕따라는 은어의 사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왕따의 개념을 묻는 주관식 설문과 왕따의 원인과 왕따가 되지 않는 대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거의 1백%에 해당되는

6. 왕따가 되지 않으려면 ▶

왕따라는 개념에 개의치 말자 8%



원인

설문조사 결과 개인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경우와 사회에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개인적 원인으로서는 타인과의 성격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남을 배려하지 않는

대안

왕따에 대한 원인을 개인과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대안을 찾는 방법상에서도 나타났으나 원인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묻는 많은 학생들이 대안제시에서는 개인의 발전·변화를 주장하는 모순된 응답형태를 보이기도

학생들이 답을 해 '왕따'라는 은어를 사용하는 대학생 폭은 더 넓은 것으로 추정된다. '왕따'의 개념정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0%(80명)의 응답자가 개인의 성격결함을 원인으로 따돌림이라고 대답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논리적 근거없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라 답한 학생이 29%(46명)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개성이 강해 보편적 사고에 편승하지 못하는 것이라 답한 경우도 각각 12%(19명)과 9%(14명)로 나타났다. 왕따의 개념정의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들어 오려전 부터 청소년사회에서 얘기돼 왔던 '이 지메'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했다. 직접적으로 왕따를 경험해 본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5%(103명)가 '왕따'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이후 '왕따라고 느꼈던 경우'라는

개성성향이 35%(58명)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개인의 적극적 소속의식 결여와 개성이 너무 강한 것이 각각 21%(33명)과 11%(17명)으로 나타났다. 사회에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즉, 개인이 집단에서 융화되지 않고 서로 소원해지는 소외현상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한 경우는 25%(39명)로 나타나 의외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사회의 왕따에 대한 원인을 개인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문제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대학의 학부제와 협력한 사상의 차이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는 기사가 8%(12명)로 나타났다.

주관식 설문에는 47%가 답을 해 많은 학생들이 왕따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왕따라고 느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 주 1회라고 답한 학생이 설문 응답자 전체학생 중 14%(22명), 2~5회라고 답한 학생이 8%(12명), 무수히 많다고 답한 학생이 15%(23명)로 나타나 3명 중에 한명은 한 주에 적어도 한번 왕따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나타났다. 왕따라고 느꼈던 경우를 묻는 질문에 52%(84명)가 '왕따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왕따라고 느꼈던 경우에는 혼자 남겨졌을 때 26%(4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곳이 없을 때와 대화도 중 의견대립이 나타났을 때 각각 8%(12명)로 같게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대화의 공통소제를 찾지 못한 경우가 6%(9명)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의외로 같은 곳을 공유할 수 없는 경우 '왕따'라고 느끼는 대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했다. 개인이 남과 융화되기 위해 타인을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응답과 개인의 적극적 단체참여와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는 대답이 45%(72명)와 28%(45명)를 차지해 개인노력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사회가 좀더 순화되어 개개인을 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대답은 8%(12명)에 그쳤다. 현대사회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대답도 11%(18명)나 나와 현대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개인이 왕따라는 개념자체를 신경쓰지 않고 아예 개의치 않으면 된다는 대답도 8%(12명) 나왔다.

문화부

자아인식

학교 안에서

끼장터

'이렇게 좋은 날 뭘가 신나는 걸 찾으세요' 동국인의 자유로운 공연활동을 위해 마련된 끼장터가 4월을 맞았다. 이번 마당의 주인공은 현역으로 클래식 기타의 진수를 보여 줄 것이다. 한편, 여학생부처에서는 끼장터에 참가할 것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접수를 받고 있다. 오는 14일 12시 계산관 앞에서 문의 여학생부처 260-3066



학술답사 사진전

지리교육과에서는 제 17회 학술 답사 사진전을 개최한다. 1년에 1번 열리는 학생들이나 교수가 정기 답사에서 찍은 사진이나 혹은 방학 때 여행을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 중에서 좋은 작품을 약 50여점 선정해 전시하는 것. 사진전은 교수가 찍은 사진, 졸업한 선배가 찍은 사진, 기획사진전, 인문지리사진, 자연지리사진 등 총 5개의 주제로 나누며, 기획사진전은 '서울의 풍수'이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학술 문화관지하 1층 전시실에서



경상대 영화제

경상대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영화제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열린다. 이번엔 상영영화는 바리케이트,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더 월 등 총 3편. 바리케이트는 아메리칸 드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국인들과 동남아인들의 현실을, 더월은 낙태와 출산이라는 선택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3명의 여성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 오는 15일, 22일, 29일 각 오후 4시에 동국관 209에서



98 Live in Dong Guk Baramil

경주캠프 그룹 사운드인 바리밀이 이번 학기 마지막 정기공연을 갖는다. 17번째를 맞는 이번 공연에서는 6명의 17기 멤버들이 '발타판사'를 비롯해 14곡의 세련된 락음악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졸업을 앞둔 선배들의 무대에서는 완숙미로 승화된 락음악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5일 오후 5시 30분 소강당1에서



왕따 극복을 위한 조건

"중요한 것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버리는 것이다"

최근 대학뿐만 아닌 사회에서 '떨떨하다', '사오정', '왕따' 등의 유행어가 남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구성원들이 인간소외문제를 일종의 코믹적 요소를 가미해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때의 웃음을 자아낸 후 잠시 그 웃음의 내면을 살펴보면 사회가 갖고 있는 인간소외나 대화의 단절, 타인에 대한 배려의 소홀 등을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행어의 남용으로 한글이 오염되고 있다는 일단의 비판점을 덮어두고 은어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왕따'란 말의 어원과 유행현상 등을 점검해 대학사회에서 나타나는 '왕따'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우선 왕따란 은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왕'이라는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가 '따' 혹은 '따돌리다'라는 동

사와 결합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나 '따돌리다'는 많은 싫어하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돌려내서 그일에 관계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밀거나 싫은 사람을 떼어내 관계를 못하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 '왕따'의 의미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은어의 발생원인은 크게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원인은 다양화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타인의 다른점을 인정하지 않는, 일률적인 성격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풍토를 들 수 있으며 개인적 원인은 개인주의의 만연을 통해 점차 자기관에 빠져드는 현대인이 단절되는 사회생활 속에서 대인과의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학사회 또한 이러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고

등학교의 규격화된 생활을 하던 10대 말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 자유로움 속에서 오히려 학우대중과의 괴리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거기에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데, 말수는 많아져도 실질적으로 서로의 이해를 구하는 말 수는 적어지면 결국 스스로를 은폐하는 분위기에 익숙해진다. 개인이 심적 상처를 받고 자신마저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려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상황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왕따'로 분류시키도록 한다. '왕따'에서 탈피하는 방법이 있어 일단은 개인이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깨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다수에 의해 따돌림당하고 있다

는 과장된 피해의식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좀 더 자신을 표현하는 성격으로 변화하려 노력하고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많이 느끼는 경우라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 여유를 갖고 재충전이나 자기정리의 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분위기를 순화하려는 사회전체의 노력도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얘기다. 경쟁우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의 만연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슬픈 일일 것이다. 타인을 '왕따'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거나 자신을 '왕따'라고 이야기하는 개개인이 왕따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과 이해의 폭을 갖는다면 민화자가 현영



▲ 조선일보 9월19일자 광수생각

제가 '오디션'이라는 작품 속에서 전한 '나 혼자서 전 인류를 왕따시킨다'는 개인 소외의 현상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최진 기자

메아리

비애

▲ '오늘도 공단거리 찾아 헤맨다'라는 검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 뒤덮을 때까지 찾아 헤맨다는 없구나 없구나 스물일곱이 한 목숨 발발 자리 하나 없구나... '에라 씨팔, 나도 바겐세일이다 3천5백원도 좋고 3천원도 좋으니 팔려가라. 바겐세일로 바겐세일로' 하루종일 일거리를 찾아 공단을 헤매이며 노동자 시인 박노해는 부르짖었다.

▲ 지금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8년. 한때 '한강의 기적'이란 그럴 듯한 말로 포장되어 위대해 보였던 '부실공화국'은 어느날 갑자기 거품이 걷히면서 초라한 빈국으로 전락해 버렸다. 흥청망청대던 서울 변화가는 하루 아침에 실업자 천지로 변모했고 서울역, 영동포역, 서소문공원 등지는 신문지사를 덮고 잠을 청하는 노숙자들로 70년대 빼어난 공단의 이름들

다시 재연하고 있다. ▲ 밤 한끼를 때우기 위해 오늘도 거리를 정처없이 방황하는 노숙자는 현재 3천명에 육박하게 되었고 기억없는 방황의 늪에 빠졌다. '거리의 부랑인'으로 치부되어 굶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불우이웃돕기식 정책을 내놓으며 선심스런 생색내는 정부기관들, 일용직 일자리라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

작금의 현실, 실직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은 노숙자들의 꿈과 희망을 소중 한 잔과 파자부스거리로 날려 버리기에 충분하다. ▲ '내가 만일 노숙자라면' 애통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문하고 싶은 화두다. 지금 IMF체제 이후 가장 낮은 곳에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노숙자이다. 노숙자들은

시대가 만들어낸 희생양이다. 나라살림 거덜낸 양반들은 어디가고 애매한 실직자들만이 거리를 떠도는지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다. 그들은 다시 일하고 싶다. 지긋지긋한 종지부를 찍고 싶어한다. 오늘도 굶니 걱정과 새우잠으로 지나간 밤을 지새우며 그들의 마음에는 어느새 차가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 오인택 사회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추석, 나는 이렇게 보냈다



△달 보며 소원을 빌어본 지도, 해맑게 놀지도, 불꽃놀이도, 연휴가 의미없다. 늘어놓은 듯.

△추석! 나는 아스팔트 위의 싸나이였다! △과연 추석의 의미는... 단지 밥만 먹는 △설거지하고, 제사상 차리고, 치우느라 하루다 보냈다.

△연휴 내내 불만 퍼냈다. △여자로 태어난 죄로 썩크대 앞에서 떨어질 날이 없었다.

△추석날 잘 먹고 잘 잤다. △추석날 할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서울에 경복궁을 구경했다 그런데 오는 차안에서 이번 수해로 쓰러진 벼들을 바라보며, 정말 농부들은 추수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 △밖에 뜬 보름달을 보며 달나게 내 소원을 빌었다.

△자취방 주인집 아주머니가 송편이랑 과일을 가져다 주셨다. 눈물 젖은 송편이라...

△추석, 잘 먹고 잘 잘 잘 일았건만 성묘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몸무게 돌러도...

△을 추석 새로 장가간 삼촌얼굴에 웃음이 보기 좋았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결혼할 이사촌형 너무 부럽다. 역시 가을의 추수만끽이나 가을은 사랑의 결실인 계절인 것 같다.

△사촌 아이 돌보고 울음 달래고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 없이 보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이야기꽃도 피우며 제사음식을 맛있게 나눠 먹을 수 있어 좋았다.

△송편을 빚으면서 엄마께 못생기게 빚었다고 구박받았다.

△추석 후유증! 아직도 우릴 괴롭히누나. △남들 놀 때 나는 벼만 봤다. 나 놀 때 내 친구...

△열심히 집에서 일만 했다. 아이고 허리아. △추석 한번 더 보내고파.

△다 내 덕이다. 지구가 온전한 거, 내가 연휴동안 지구를 지켰다.

△동네 초등학교에서 불꽃놀이 하면서 경찰차 도망다녔다.

△쓰러진 때 때문에 고생하는 큰 아버지와 식구들과 함께 겁나게 나락했다. 농부아저씨들 힘내세요.

△추석을 알차게! (추)수-버베기를 (석)저녁 석까지 하고 돌아와서 온몸이 뻑적지근??

△나 달 왔다. 내 얼굴보고 소원 비세요. △나? 음... 껌이는 가을을 맞아 좋은 인연 만들어 돌아다녔다.

△3,4일 문 연 학관에서 동연제 준비하며 보냈다.

대학간 경쟁현실 극복위해 경주캠 구성원 화합 절실

올해로 경주캠퍼스도 개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설립 후 20년동안 눈부신 발전을 했고, 자부심을 느낄만도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동국은 하나”라고 하는데 과연 경주캠의 구성원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할까? 우리는 그동안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간의 화합과 신뢰형성 보다는 외적인 팽창에만 너무 전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경주자치권 확보, 부총장권한강화, 교육환경개선 등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경주캠의 현안들을 교수·직원·학생 모두가 마음을 열고 논의한 적이 과연 한번이라도 있었을까?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화라는 급류에 휘말려 흔들리고 있다. 대학 또한 피해를 갈 수 없는 입장이다.

교육개방과 대학구조조정이란 태산을 정복하기 위해선 지금이야말로 경주캠 전체 구성원들의 하나됨이 절실할 때이다.

대학내 '텃세' 그릇된 풍조 경쟁과 협력의 공존 필요

야생동물들 중에는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먹이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권위를 과시하고자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노력한다. 심지어 생존의 위협을 덜 받는 애완견들도 각자의 생활 공간을 알리고 지키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인간에게도 '텃세'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시장에 새로운 장사꾼이 나오면 그들에 대해 기존에 있던 장사꾼들이 텃세를 부린다. 특히 노점상들에게 있어 텃세는 장사꾼이 곤란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한다. 물론 장사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렵게 기반을 닦아 놓은 곳에서 다른 사람이 쉽게 이익을 얻는다면 분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에 어렵게 자리를 잡은 이들은 그들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경쟁자와의 승부에서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작은 범위가 넓은 젊은층으로 구성되고 다른 사회보다 열려 있다는 대학이라는 곳에서도 텃세를 부리는 이들이 있다. 특히 96년도 이후에 편입생, 전과생들이 생기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조화를 이루면서 잘 생활하는 학우들도 있지만 1년이 지나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편입

다. 구성원들의 역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지만 우리 온방골은 치열한 대학간의 경쟁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너무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한다. 이제 서로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과감히 표현해야 한다. 분별 쉽지 않은 것을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주캠에 대한 애교심을 가진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서로간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자.

보다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모든 구성원들간의 화합으로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국의 위상을 세계로 펼칠 수 있는 원대한 포부를 가슴속에 품어보자.

“경주캠퍼스 개교 20주년” 이제는 성인으로서 우리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너의 학교가 아닌 자랑스런 우리학교로 만들어 보자.

백재욱 (경주캠 제15대 총학생회장)

생, 전과생들을 보면 아직까지 기존의 학우들이 이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편입생, 전과생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텃세를 부리는 학우들로 인해 그들의 적응이 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교육제도상 대학진학을 앞두고 장래에 대한 계획이나 전공과목 선택에 많은 비중을 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편입, 전과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도 엄연히 하나의 사회이다. 그러므로 경쟁과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두가지가 공존해야만 사회가 잘 유지되듯이 대학도 그러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는 경쟁만 앞서고 있는 것 같다. 대학생들도 통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태도들이 계속된다면 통일후 북한동포들과는 어떻게 지낼 수 있겠는가. 어찌보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공간, 사건을 마주하며 변화를 겪는 철새일런지도 모른다. 어느 누가 텃세를 부릴만한 입장이 될 수 있을지.

김경미 (문과대 독문과)

동문칼럼

당당히 홀로 서라

후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각자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이나 이상이 작금의 현실과 얼마나 부합되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성취할 수 있느냐를 가름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IMF한과 속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은 이러한 가름조차 허락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이 여러분 인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리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흔히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 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가정과 친인척, 선배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미래(취업등)를 의지하거나



강태규
(연세학원 원장·수교 96졸)

위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그 이상을 기대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행로를 주변의 누군가에게 내어주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적성과 이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번뇌와 갈등 속에서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되는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기대함으로써 오는 위험성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적절하고 적합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경주캠 동창회비 환불 유감 후배들 위해 제대로 쓰시길

지난 9일 오후 2시 학생회관 옥야실에서는 동창회비를 환불한다는 과학생회장의 말에 2백여명이 모이는 일이 있었다. 지난 달에 동창회비의 1차 환불때 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다시 모인 것이다.

올해 예비 졸업생들은 지금까지 대학 4년을 다녔다면 이제는 동국인으로 선배가 되고, 후배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야할 시기인 것이다. 동창회비가 후배들의 장학금이나 도서기증, 그리고 학교 동창회의 운영을 위해 쓰여진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학생들이 내는 동창회비는 경주캠만의 후배들이 아닌 동국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운영이 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96년부터 해마다 경주캠에서는 동창회비라 하면 단체학생회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내는 4학년 졸업생들에게 골치거리일 뿐이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2만원이 뭐 그리 아깝냐고 그러겠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올해도 여전히 동창회비는 문제를 일으켰고, 급기야는 학생들에게 환불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한 소문이 퍼지자 보니 2차 환불이라는 명목하에 지난 9일 또 다시 2백여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상황이 여기까지 악화되다 보니 총동창회측에서는 '동국인은 하나'라는 모토 대신 경주캠의 동창회 문제는 경주캠퍼스 직할 동창회로 이관하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

다. 이제까지 주장했던 직할 동창회 권한 이임 문제를 지금까지 유아무야로 끝내 놓고 이러한 소동이 벌어지면 수습을 말긴다는 차원에서 직할동문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전부터 그러한 직할 동창회 내에서 동창회비 이야기가 나왔었던들 동창회비를 내지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까지는 최소한 없었을 것이며, 굳이 선 후배간의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창회비는 선배가 후배에게 남기고 가는 마지막 배려이다.

이번일로 생긴 재정적인 권한을 이임 받은 경주캠 직할 동창회는 경주캠의 동창들과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을거라는 생각도 든다. 말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동창회비가 이제는 제대로 알맞게 쓰여지기를 바랄 따름이다.

이정민 (자연과학대 가정교육)

다양한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월	두부김치(1300) 참치볶음밥(1300) 후원크림밥(2000) 비프스튜(3000)
화	소고기볶음밥(1300) 튀김달걀(1200) 비빔밥(2000) 생선까스(2500)
수	떡갈비찜(1500) 카레라이스(1200) 낙지볶음(2500) 햄야채볶음(2000)
목	참치회덮밥(1300) 스파게티백반(1300) 물고기백반(3000) 돈까스(2500)
금	치킨까스(1300) 순대야채볶음(1300) 오징어볶음밥(2000) 생선초밥(3000)

(단위:원)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월	순두부찌개(2800) 떡배기불고기(3200) 돈까스(1500) 고추찌개(1300)
화	우거지갈비찜(3300) 회덮밥(3000) 소고기야채밥(1300) 오징어무국(1300)
수	튀김우동(3000) 북어양념구이(3000) 양지탕(1300) 비엔나볶음(1300)
목	추이탕(3400) 목회(3000) 탕수육백반(1500) 감자수제비국(1300)
금	소고기전골(3000) 족발정식(3100) 사골우거지국(1300) 비빔밥(1300)

(단위:원)



동약광장

목격글

추하합니다.

△다가를 10월 21일, 독문92 '강원표'님의 생일을 많이 많이 축하!! -95 이쁜 경 △자경아, 10월 6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98 나이스 가이 △민수야, 보현아, 진원아, 대학원 합격을 축하한다. -건총 92 △재수형, 논문초록 발표 축하드립니다. 언제 술이나 한잔 사주세요. -동상 철주

수고하셨습니다

△10월10일 게르마니아제 준비하신 모든 독문인! 수고하셨습니다. -~ △불당학회 감사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무한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며... △금요일 점심 굶기 모금운동하는 석균이, 인석이, 원기, 종연이 모두 수고하십니다. △불교학부 김현주학생 현월하느라 수고

하쳤어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가쁜 마음에 반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동연제 자부다. 열심히, 열심히 합시다. -동연 파이팅 △성정아! 힘내자. -M △영수야, 학교 열심히 다니자. -별 기다리는 친구 △기정아, 신병 생활 힘들어도 열심히 해라. -96

그리고...

△기동아, 수호야 점심 잘 먹었어. 뽀뽀 락도 씹고 풍선도 불고. 뽕유! 헤어밴드 예쁜걸로 꼭 사렴. -혜선 △중양도사관 3층 휴게실, 공중전화 수리 요망(언제까지 그대로?) △대규형 소개팅 꼭 시켜줘요. -고향후배 △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중간고사가 다가왔다. 왜 왔나, 흐흫. △가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



시다. △예측불허, 추석 잘 보냈는지 궁금해요. -피 -실

온방골

추하합니다

△건표와 수련이가 10월11일 2백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수련니 하고 건표가 썼음 △어려운 동아리연합회 기회부장님,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98 거·사 후배들 △조경화과 '천란' 10월17일 생일축하한다. -친구 정희가 △대영선배 10월8일 생일축하행. 오래오래 사시고 행복해야돼요. -김자 △원석아! 생일이 지나간 했지만 축하한다. 그러구 기숙사 잘 들어가고, 수업도 잘 들어오고... -친구 훌이가 △10·15생수, 10·27인철 군입대를 축하한다. 쫌 고생하고, 인간 되어서 우리의 결으로 와라! -유정·윤미

△19일이 영상이 생일이라고 하더군요. 이번 생일에는 꼭 머리에 맞는 모자를 선물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학과 야구부 부원들 1년동안 운동한다고 수고했다. 다음연도에도 최선을 다하는 스나이퍼가 되자. -감독 △미선아! 운영이 언니, 지현이 언니 부족한 운미 여러 가지 도와 주어서 정말 고맙구. 늘 행복 해야해. -전·통 94 조직

열심히 합시다

△은영언니! 이번에는 꼭 장학금을 타시다. 언니는 1등, 나는 2등. We can do it! 파이팅! -G. mlyoung △경미야! 요즘 어머니? 동아리 칼럼 발표 준비는 잘 되고 있었지? 열심히 해라. -유순 △미리아! 이때까지 잘 해온거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연이

알립니다

△경주 경실련에서는 신임 '간사'를 공채합니다. 자격은 전문대 졸업이상이고 경주 거주자로 나이는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집인원은 2명이고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 시민운동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1부입니다. 모집기한은 오는 17일까지. -경주 경실련 △바라밀에서는 참신한 새내기를 모집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영환아, 사지머리가 애타게 전화기다린다. 연락 좀 해줘라. △K고 동문. 이등백 군대 잘 갔다와라. -K고 동문일동 △가을, 이제 곧 겨울, 계절이 변해도 변치않을 막강 경영인의 사랑과 우정을 위해서 △관관경영 쥐야가 머리를 합니다. 현취야 모던걸 잇고 새롭게 시작! 파이팅! -아름다운 해주